

한별텔레콤(주)

정보통신기기 전문 생산업체

21세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프론티어를 꿈꾼다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와 PC용 위성방송 수신 카드 등 첨단 장비를 생산하는 한별텔레콤은 지난 1982년 공성통신전자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989년 상장되었으며, 활발한 수출 활동으로 각종 산업 훈장을 비롯해 수출1천5백만불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8년 12월 신민구 대표의 취임과 함께 사명을 한별텔레콤으로 바꾸고 21세기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목표하에 새롭게 태어났고, 이때부터 한별텔레콤은 아날로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별텔레콤은 인터넷 비즈니스와 위성방송사업 전개를 위해 지난해 9월 이미 IBC(인터넷 비즈니스 센터)와 위성 멀티미디어 센터(SCMC)를 설립한바 있으며 현재 향후 펼쳐질 국내 디지털 방송 시장에 적합한 멀티미디어 셋톱박스 및 PC카드를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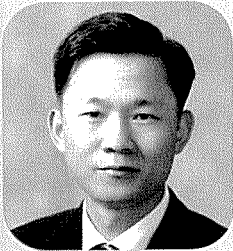
멀티미디어 셋톱박스는 단순한 디지털 방송수신기능 외에 위성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하는데 그 속도는 ISDN이나 케이블 모뎀보다 훨씬 빨라 차세대 통신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DSL(비대칭디지털 가입자회선)카드인 애플란타를 개발한 고속 통신용 장치개발 전문 벤처기업인 ACN테크와 제휴, 시장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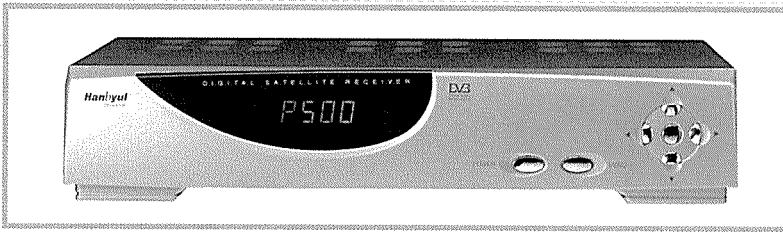
ACN테크와의 제휴를 통해 마케팅과 생산을 전담하게 된 한별텔레콤은 유럽을 판매 전략지로 선정하고 독일의 현지법인을 마케팅 전진기지로 정했다.

자회사 한별인터넷쇼핑, TV인터넷 사업추진

한별텔레콤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인프라 제공 서비스,



- 대표 : 신민구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33 옥산빌딩 10~12층
- TEL : 02)567-7300
- FAX : 02)563-4455
- http : //www.hbtele.com
- 주요 생산품목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 위성방송용
신용 PC카드, 케이블모뎀, 무선호출
기, MP3 플레이어, PC카메라



EC(전자상거래)솔루션 제공, Non-PC포털서비스를 주 사업분야로 하는 한별 인터넷을 설립하였다.

양사는 인터넷 사업 전개 분야의 효율적 제휴를 통해 TV를 통한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 셋톱박스를 개발 및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는 데 오는 3월 서비스와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TV인터넷은 정보화의 큰 물결에서 밀려나고 있는 중년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국가 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해 인터넷 PC충판사업에도 진출했으며, MP3플레이어와 카메라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어 올해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 디지털 위성방송사업 시작, 국내 위성방송시장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

지난해 김미현 선수의 후원을 결정해 화제를 모았던 한별텔레콤은 지난 1월 미국내 위성방송사업 진출선언으로 업계를 또 한번 놀라게 하였다.

한별텔레콤은 지난해 9월 전 미 하원의원인 솔라즈씨를 고문으로

영입하여 나스닥 상장 추진을 가시화했으며 지난 1월 미국 현지에서의 위성방송에 전격 진출했다.

디지털 위성방송사업 진출 첫 작업으로 미주 전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성방송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채널코리아>에 대한 인수작업을 이미 마쳤으며 2000년 2월부터 미국 전역의 한인 교포를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 서비스와 위성방송수신기 판매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한별텔레콤이 1월 중에 미국 최대 위성 사업자 에코스터의 위성을 이용해 펼치게 되는 사업은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 교포를 대상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디지털 위성방송사업과 위성방송수신기 공급사업, 물론 TV인터넷사업과 방송을 통한 각종 문화 이벤트 사업등 부대사업들이다.

위성방송사업 진출로 한별텔레콤은 디지털 방송장비분야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련제품(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 위성수신PC카드)의 막대한 매출 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별텔레콤의 미국 위성방송사업 진출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전

이 없던 국내 위성 방송 사업 업계에서 나온 첫 가시적인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향후 6년간 28조원이 예상되는 거대한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어 국내 디지털 위성 방송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별텔레콤은 향후에 위성방송사업에 현재 자회사인 한별인터넷과 공동으로 준비중인 디지털 TV인터넷 사업을 접목시켜 위성방송 수신자들이 TV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TV인터넷 사용자들은 위성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무장한 한별텔레콤, 새로운 천년의 디지털 정보 사회의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디지털 한국의 미래가 엿보인다.